

“보이스피싱 경각심 영화적 재미 동시에”



영화 ‘보이스’.

영화 ‘보이스’ 김선·김곡 감독 시사회

전화 소재 실제 파헤치는 사실주의 액션극
오는 15일 개봉...“리얼함 제1규칙 삼았다”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초기에 극장가를 찾는다.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억압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사실주의 액션극 ‘보이스’다.

김선·김곡 감독은 지난 6일 시사회 직후 간담회를 열어 여전히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치밀함과 심각성을 전하며 “경각심과 함께 영화적 통쾌한 재미를 동시에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뒷에 걸린 전직 경찰 서준(변요한)이 자신과 공사장 동료들의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에 있는 본거지에 잠입하는 이야기다. 서준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대본을 쓰는 설계자 박 프로(김무열)를 만난다.

실제 범죄를 소재로 한 만큼 영화는 생생함을 무기로 삼았다. 피해자 핸드폰에 깔려 모든 발신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

로채기 앱’,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하도록 해주는 장비를 여러 대 돌리는 ‘변작소’ 등 실제 범죄에 이용되는 수법들이 담겼다.

김선 감독은 “보이스피싱의 본거지인 콜센터 등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영화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며 “디테일하게 연출하려고 했다. 범죄 수법, 사기 전략 등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김곡 감독 역시 “현재 진행형 범죄로 지금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리얼함을 제1의 규칙으로 삼았다”며 “금융감독원, 지능범죄수사팀, 화이트해커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도와 변작팀, 콜팀 등의 역할 배분 등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콜센터에서는 조직원들이 일종의 유니폼인 번호가 적힌 재킷을 입고 4명이 팀을 짜 주어진 대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소화하며 전화를 돌린다. 기업의 최종 면접 대상자였던 최준생, 아파트 분양 신청자 등이 그 희생자가 된다.

김선 감독은 “범죄 집단이 사용하는 대본 유출본이 조금 남아있는데, 형사를 통해 조연을 듣고, 몰래 찍힌 사진들을 많이 참고했다. 영화에 나오는 대본은 몇 컷에 불과하지만, 양이나 수법이 다양하고 억압하다”고 전했다.

김곡 감독은 “한 사람이 아닌 두세 명이 더 붙어 전화를 걸며 형사, 검사, 금감원 흉내를 내며 역할극을 한다”며 “안 숙으려야 안 숙을 수가 없다. 영화를 통해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리얼 범죄 액션을 표방하는 영화는 시각적인 쾌감도 선사하는데, 변요한은 대부분의 액션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고 했다. 상대역인 김무열은 변요한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숙소에서 샌드백을 치는 등 열심이었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5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김선·김곡 감독(왼쪽부터).

/CJ ENM 제공

“자기 율타리 지키려는 사람들 욕망 담아”

tvN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 조여정
상위 0.1% 여성들 숨겨진 거짓과 위선

“누구 하나 안쓰럽지 않은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 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배우 조여정(40)이 tvN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고백한 작품 출연 계기다.

‘하이클래스’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을 그렸다.

극 중 남편을 죽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모든 것을 잃게 된 전직 변호사 송여울 역을 맡은 그녀는 “다른 드라마에서 변호사 또는 상류층의 엄마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특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이번 작품을 위해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조여정은 “늘 한 번쯤 작품을 위해 머리 스타일에 변신을 크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배경인 국제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여왕벌’로 군림한 남지선 역을 맡은 김지수(49)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악역”이라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빈껍데기인, 알고 보면 부러운 것이 없는 여자”라고 설명했다. 또 “조여정과 언젠가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



tvN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 출연진. (왼쪽부터) 배우 조여정, 김지수, 하준, 박세진, 공현주.

/tvN 제공

었는데 만나게 돼 반가웠고, (조여정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듬직하게 잘 해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다”고 칭찬했다.

‘하이클래스’의 청일점이자 국제학교의 교사인 대니 오 역을 맡은 하준(34)은 “촬영하는 내내 몸돌 바를 몰랐다. 지금도 손에 땀이 많이 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또 “(작품이) 정말 재밌고 등장인물들이 다 생동감이 있어 좋았다. 인물들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

고 호흡이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어 시청자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시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출을 맡은 최병길 PD는 “기존 상류층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입시나 경쟁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하이클래스’는 자기들의 율타리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내려고 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첫 드라마일 것”이라고 차별점을 짚었다./연합뉴스

KBS 단독쇼 앞둔 심수봉

“내가 되레 위로받은 공연”

추석 연휴인 오는 19일 KBS를 통해 대형 TV 단독쇼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선보일 가수 심수봉이 이번 공연은 자신의 가수 인생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면 공연을 소화한 심수봉은 7일 제작진을 통해 “이런 대형 TV 단독쇼는 데뷔 이후 처음이었고 데뷔 43년 만에 나 심수봉도 활짝 피어났다”고 인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시작한 공연이었는데 내가 되레 위로를 받았다. 이번 공연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고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심수봉은 비대면 공연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관객 없이 공연을 하게 됐지만 대규모 무대와 화려한 LED 영상, 퍼포먼스

가 다채롭게 구성됐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동안 TV에 출연해서도 2~3곡의 노래만 불렀는데 이번에는 큰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에서 숨은 명곡까지 20곡이 넘는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흔히들 내 노래는 비탄조의 슬픈 멜로디라고 하더라. 나에게도 다양한 리듬과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노래들은 대부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담았는데 기적같이 일면식도 없는 대중들이 음악만으로 제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줬다. 대중들의 마음이 오히려 내 삶을 위로해주고 이끌어줬기에 이제 내 삶보다 몇 배 몇 십 배 더 힘드셨을 그분들에게 내가 위로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8시 KBS 2TV 방송.

/연합뉴스



9월 19일 (일) 저녁 8시 방송 KBS2

“영원히 노래하겠단 진심 담았죠”

영케이, 6년만의 솔로앨범 ‘이터널’ 발매

“영원히 노래하고 싶은 저의 진심을 담은 앨범입니다.”

밴드 데이식스(DAY6) 영케이가 데뷔 6년만의 첫 솔로 앨범 ‘이터널’(Eternal)로 보다 확장된 음악 세계를 펼친다.

영케이는 6일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고 무얼 바라는가,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꼭 고민했다”며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그 고민에 대한 현

재까지의 내 느낌을 담았다”고 앨범을 소개했다.

데이식스는 물론 유닛(소그룹) 이번 오브 데이의 앨범에서 프로듀싱 역량을 발휘해온 그는 이번 솔로 앨범에서 역시 전곡을 작사·작곡했다.

그는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곡을 만들려고 했다”며 “글로 정리되기 어려운, 마음이 인정하는 음악”이라고 말했다.

영케이가 쓴 가사는 답답하면서도 대중의 공감을 끌기로 유명하다. ‘예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똥고 지나가요’ 등 그룹의 대표곡 작사에 참여했다.

소속사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은 여러 차례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그가 만든 곡을 칭찬하기도 했다. 신보 타이틀곡 ‘끝까지 안아 줄게’에서도 “흠집 하나 안 나게 아이돌 유”, “바람 앞에 작은 촛불 같은 너/언제라도 꺼질 것만 같아서 눈을 땔 수 없어” 등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가사가 눈에 띈다.

영케이는 “한 번에 이해되고 바로 와닿는 가사를 늘 추구한다”면서 “다양한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노랫말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곡은 로맨틱한 가사라는 달리 사운드스는 폭발적으로 전개된다. 이모 힙합 리듬과 밴드 연주가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멜로디도 중독적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8일 (음력 8월 2일)		
 子	48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60년생 골치 아픈 일로 마음이 심란하다. 72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84년생 젊은 사람과 한 톱이 된다.	 丑	49년생 매사에 중용을 지켜라. 61년생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73년생 감당하지 못할 일은 처음부터 벌이지 말라. 85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寅	50년생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이다. 62년생 믿을 것은 핏줄뿐이다. 74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절은 필요하다. 86년생 다된 밥에 재 뿌린다.	 卯	51년생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63년생 지인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겠다. 75년생 인기가 갑자기 치솟는다. 87년생 뜻밖의 수입이 생기겠다.	
 辰	52년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64년생 믿음이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76년생 힘들고 지치는 날이다. 88년생 이성의 유혹이 있겠다.	 巳	41년생 귀인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듣는다. 53년생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겠다. 65년생 지나간 과거는 잊어라. 77년생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午	42년생 금전 문제로 다룬다. 54년생 노력에 걸맞은 좋은 결실을 맺는다. 66년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78년생 일에 처음과 끝이 없으니 난감하다.	 未	43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굵다. 55년생 확신이 없다면 재검토하라. 67년생 명예와 재물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79년생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申	44년생 도저히 뜻대로 할 수가 없다. 56년생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벌이지 말라. 68년생 집밖을 나가면 낭패만 본다. 80년생 억울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酉	45년생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라. 57년생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6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81년생 분노를 참고 냉정해져라.	 戌	46년생 조용히 소리를 따라라. 58년생 평온한 가운데 폭풍이 몰아친다. 70년생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있겠다. 82년생 절대 총알받이는 되지 말라.	 亥	47년생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59년생 오후가 되면 큰 행운이 찾아오겠다. 71년생 표창 받을 일이 있겠다. 83년생 귀인과 즐겁고 유익한 만남이 갖겠다.	